

한중 신화 속의 여산신 형상*

김 지 영 **

한국과 중국에서 산은 단순한 자연체(自然體)가 아니다. 평평한 대지 위에 유독 우뚝하게 솟아 오른 산의 형상은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며, 설명되지 않는 인간 생로병사의 열쇠를 지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있다고 상상하던 곳이었다. 산에 대한 숭배와 상상력은 하늘의 신과 소통하며 인간사를 다스리는 산신(山神)을 창조하였다. 한국과 중국 전통 종교에서 산신은 지상과 자연신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며 존송되어왔다.

한국과 중국 산신신앙 중 특이한 점은 특정 산에 거하면서 역사대대로 그 영향력을 지대하게 발휘하던 여신, 즉 여산신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여산신은 세속적 민중의 신으로 대단한 응집력을 보이며, 정치 권력층이나 신흥종교와 융화되었다.

한국 지리산의 성모와 한라산의 설문대할망, 중국 상상속의 산 곤륜산의 서왕모와 태산의 벽하원군은 이와 같은 여산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양국의 대표 여산신이며 그 영향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리산 성모, 한라산 설문대할망, 곤륜산 서왕모, 태산 벽하원군과 관련된 신화 자료를 중심으로 한중 여산신의 다양한 형상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여산신 신앙의 변이과정과 그

* <http://dx.doi.org/10.14381/NMH.2015.09.30.47.171>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15).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33yung@daum.net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여산신, 신화, 지리산 성모, 설문대할망, 서왕모, 벽하원군

K C I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중국 신화 속의 여산신 형상 |
| II. 한국 신화 속의 여산신 형상 | 1. 곤륜산 서왕모 |
| 1. 지리산 성모 | 2. 태산 벽하원군 |
| 2. 한라산 설문대할망 | IV. 한중 신화 속 여산신 형상의
변이 과정과 그 의미 |
| | V. 맺음말 |

I. 머리말

“신화”라고 하면 신(神)의 화(話)로 인류가 상상해낸 여러 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중국의 신화학자 원가(袁珂)는 “신화는 본래 이야기나 전설이라는 뜻일 뿐인데, 단지 신화와 종교의 관계가 밀접하고 종교에서 받드는 많은 신들에게 그 행적을 전하는 신화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신화에는 반드시 신이 있어야 한다는 착각을 일으킨 것”¹⁾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초창기 신화에는 종교적 개념의 신에 대한 숭배가 없었다. 훗날 전설이나 전해지던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종교에서 받드는 신들과 관련되어 전해지면서 점차 신에 대한 이야기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는 어떤 특정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그냥 전해져 오는 이야기 혹은 전설을 의미한다.

인류의 무궁무진한 신화적 상상력은 자연발생적인 과정(automatic process)으로 언어·행위·인지가 결합된 더 큰 기호체계이다. 이러한 결합관계는 매우 인접적이고 직시적이어서, 현실적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신화를 믿는 사람은 그런 신념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이를 행위로 실천하기도 한다.²⁾

신화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타계(他界, 혹은 神界, 仙境, 환상 세계)

1) 위안커, 김선자 외 옮김(2007), 70~71면.

2) 송효섭(2012), 23면.

에 대한 갈망이 내포되어져 있다. 신화 속에 투영된 타계에 대한 기이한 상상력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속세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창조해냈다. 이러한 타계의 신화 세계는 속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상과 욕망, 기대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인류의 자연과 종족 환경에 대한 해석과 상상, 생명 현상—특히 죽음·질병·재난에 대한 공포심과 장수·건강·행복에 대한 갈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산에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 속에서 수 천 년을 살아온 대부분의 민족은 어느 특정한 산을 이상향³⁾으로 삼고, 그곳에 자연조화와 인간사를 주재하는 산신이 산다고 여겨 경외하며 숭배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전통 종교에서 산신은 지상과 자연신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모든 의식에서 가장 먼저 섬김을 받고 존경 받는 존재였다. 사람들은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산의 정기를 받는 산신은 “단순히 산을 지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길흉화복의 전반을 통어하는⁴⁾ 능력이 있어서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에도 막강한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 기도나 제사를 통해 산신의 영험함을 얻고자 하였다.

산신에 대한 상상과 숭배는 일상속에서 점차 특수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구전(口傳)으로 혹은 문헌으로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원시적 산신은 여성으로 생각하였다. 한국 산신의 성(性)에 대해서 손진태는 일찍이 한국의 고대 산신이 어머니 혹은 할머니 등의 여성으로 시작하여 신라와 고려의 통일 시대에 이르러 중국

3) 고흥강(顧頡剛)선생은 중국 고대 신화 계보를 정리하면서 중국 고대 신화를 곤륜신화와 봉래신화로 나누었다. “곤륜신화는 ‘산의 타계’에 대한 상상이며, 봉래신화는 ‘바다의 타계’에 대한 상상이다. 대체적으로 곤륜신화는 수직적인 우주 구조라는 특징이 있고, 봉래 신화는 수평적인 우주 구조의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산 중의 이상국’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의 이상국’이다.” (中國民俗學會編(2002), 326~332면)

4) 金榮洙(2001), 384면.

에서 부권본위(夫權本位)의 사상이 전해지면서 산신이 점차 남성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⁵⁾ 산신은 동물신에서 인격신으로 변화하였으며⁶⁾, 산신은 원래부터 여성이었는데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점차 남자신에게도 산신의 신격이 부여 되어 남녀산신이 공존하다 이후에는 남자신이 다수가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⁷⁾ 산신과 관련된 설화는 특히 구전되어 전승되어온 산신신앙 연구의 주요 자료로 산신을 지역별, 유형별로 나누어 전승양상을 분석하고 전승집단의 의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⁸⁾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명산인 지리산과 한라산, 곤륜산과 태산에 좌정했던 여산신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지리산은 통일신라 이래 남악으로 지정되어 국가 제례에 포함된 국가의 산이자, 청학동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수많은 이들이 찾아들었던 한국의 대표적인 산의 이상향이다. 한라산 또한 제주도라는 섬의 지형적 환경에서 홀로 우뚝 솟아 신비로움을 상상하게 만드는 곳이다. 중국의 곤륜산은 현재까지도 그 실체를 찾아 헤멜 정도로 중국에서는 전통적 산의 유토피아이며, 태산은 동악(東嶽)으로 황제들이 봉선(封禪)을 행하며 존송하던 중화인들의 정신적 이상향이다. 이상향인 산에 거처하며 숭배되었던 여산신이 바로 지리산 성모, 설문대할망, 서왕모, 벽하원군이다.

본고에서는 이들과 관련한 신화⁹⁾ 속에서 한중 여산신 형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가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특별시 했던 공간에 좌정하여 숭배 받았던 여산신 신앙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5) 孫晉泰(1934).

6) 김영진(1991), 양서연(2011)

7) 孫眞(2008), 양서연 앞의 논문(2011)

8) 이은칠(1999), 추창훈(2000), 이은칠(2000), 손정희(2000), 김의경(2003), 임재해(2005) 등.

9) 한국에서는 설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편이나 중국에서는 신화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본고에서는 신화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쓰고자 한다.

여산신 관련 자료에서 구전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현지 자료 수집 등의 과정을 거쳐 향후 과제에서 보완할 계획이다.

II. 한국 신화속의 여산신 형상

1. 지리산 성모

지리산 성모는 지리산에 좌정한 여산신이다. 일제통치 시대 배일(排日) 석상으로 훼손되고, 근대에 이르러 도난과 타종교의 배척으로 인해 성모상이 철거되기 전까지, 지리산 성모는 지리산의 최고봉 천왕봉에 굳건히 좌정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참배를 받았다. 신라시대부터 남악(南嶽)으로 지정된 지리산에 대한 제사는 곧 산신에 대한 제사였으며, 지리산 산신인 성모에 대한 제사로 왕실에서 중요시 여기던 제의였다. 고려 명종(明宗) 17년 4월에 지리산 신상의 머리가 홀연히 사라지는 변고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 왕이 중리(中使)를 보내어 찾게 하여 수개월 만에 찾았다.¹⁰⁾ 지리산 신상은 곧 지리산 성모상을 말한다. 갑작스레 사라진 지리산 성모상의 머리를 찾기 위해 왕이 친히 관리를 보냈다는 것은 고려 왕실에서 지리산 성모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교를 정치적·사상적 이념으로 내세우고 승유억불의 정책을 펼치던 조선왕조에 이르러서도 지리산 성모상은 여전히 천왕봉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지리산을 찾은 일부 유학자들은 여전히 고유문을 지어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다. 지리산 성모는 시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송하던 한민족의 오래된 여산신이다.

10) 『高麗史』卷55, 志9, 五行3, 土: 明宗十七年四月癸酉 智異山神像頭忽亡 王遣中使索之數月乃得.

1) 창조신의 면모를 지닌 할미신이다.

<①-1 고소산성>

고소산성에 대한 유래 한번 잠깐 해보겠소.……노적대, 노적대라고 하면 전생활 때, 전생 식량이 필요해. 그때 난리를 생각해서 곡식을 채워 놓는 그런 생겼단 말이지. 노적대. 고소산성을 고소성이라고 하는데 노적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만 국경지대라서 이제 그만 전설에 의하면 (칭취불능) 맞는 말인데 유일한 우리나라 산신령은 전부 다 남잔데 유일하게 지리산 산신령만 여자라. 지리산 산신령, 그 거 마고 할멈이라 하는데, 마고 할멈 그 산신령이 와서 돌 하층에 와서 가운데다 빙 섰다 이런 전설이 있고 저 그런말이 있고 또 마고 할멈이 인저 성을 쌓으려고 하니께 돌을 옮길라 하니까 저 사방에 모이들었다 이거야. 모이라 하니께 돌을 옮길라하니까 저 사방에 모이들었다 이거야. 모이라 하니께 올라온 돌이 전부 딱딱 올라가 보인 (칭취불능) 돌이 전체가 성을 딱 보인다. 11)

<①-2 금호산>

지리산하고 금호산하고 거리가 마, 상당히 멀거든. 그런데 그 옛날에 마호 할마라고. 마호할마니라고. 응, 할메가 남해까지 거느리게, 남해 금산까지 지리산에서 요리요리 건네가고, 걸어테니는데 항시 가면 노란 앞바다에 가면 다리를 거지 가약한다 해예. 물이 좀 깊었던 말인지예. 항상 다리를 거지가고 이래가고 건네가고, 이 하도 불편해서 지리산을 돌을 한참을 싸아 오다가 노랑 딱 뼈아가고 고만 요래카코 건너테닐끼라고 그래가고 왔는데 해필이사 금호산을 가다가 그만 요따다가 그만 싹 부어뻗기라. 그래가고 돌이 한참 많닥해예. 돌이 지금도 상당하데예. 건네가지도 못하고 고만, 그래가고, 요기서 금해까지 다리를 못 놓고 말았답니다. 12)

위의 두 자료는 문헌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리산 성모의 전신(前身)과 원초적 직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 두 자료에서 지리산 산신은 성모나 천황이라는 고급화된 명칭이 아닌, ‘마고 할멈’, ‘마호할마니’라는 마고할미로 세속화 되고, 민간화 된 이름으로 한국 유일의 여자 산신령(①-1)이라고 특징짓고 있다. ①-2에 따

11) 조희웅 외(2003), 305~306면.

12) 조희웅 외(2003) 앞의 책, 193면.

르면 지리산 마고할미 신앙은 지리산권역 뿐만 아니라, 섬진강 권역과 남해 권역까지 넓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 지리산과 금호산(금오산)이 먼 거리이지만, 마고할미는 다리를 거지고 건너다닐 정도로 거인의 몸을 한 여신이다. 또한 고소성이나, 혹은 다리를 놓기 위해 지리산의 돌을 운반하여 산천과 바위 등의 지형을 창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구의 몸에 돌과 바위를 이용해 특정 지역을 형성하는 창조여신의 직능을 가지고 있다.

2) 건국 시조의 어머니이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지리산 성모는 시조의 어머니라는 설과 맞물려 왕조의 선대를 미화하고 왕실의 혈통을 신성화¹³⁾ 하는데 조력하고, 이로 인해 국가적 사전(祀典)에 등록되어 받들어 모시게 되었다.

<②-1 위숙왕후설>

내가 일찍이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를 읽어보니 성모가 선사에게 명하였다.[聖母命洗師]라는 구절의 註에 “지금의 지리산 천왕봉이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고려 태조의 어머니 위숙왕후를 가리킨다. 고려 사람들이 선도성모에 관한 전설을 익히 듣고서 자기 나라 임금의 계통을 신성시하고자 하여 이 설을 지어낸 것인데, 이승휴가 그대로 믿고서 『제왕운기』에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다.¹⁴⁾

<②-2 마야부인설>

그리고 이른바 천왕상을 보았다. 한 승려가 말하기를 “이 분은 석가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입니다. 이 산의 산신령이 되어 이 세상의 화복을 주관하다가, 미래에 미륵불을 대신하여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¹⁵⁾

산신을 성모라 하고 거기에 시조모가 개입되는 일은 여신의 시대에

13) 김아네스(2009), 29면.

14) 金宗直, 『佔畢齋集』卷2, 「遊頭流錄」. 余嘗讀李承休帝王韻記 聖母命洗師 註云 今智異天王 乃指高麗太祖之妣威肅王后也 高麗人習聞仙桃聖母之說 欲神其君之系 創爲是談 承休信之 筆之韻記 此亦不可徵.

15) 南孝溫, 『秋江集』6卷, 「智異山日課」. 見所謂天王者 僧曰 此釋伽摩摩儞夫人爲此山神 禍福當世 將來代生彌勒佛者 其言一何遼遠而無文據.

서 남신의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며¹⁶⁾, 여산신으로서의 독립적 면모를 보이던 여신들은 시조의 어머니신으로 물러서는 대신 성모나 신모, 모주가 되어 신성성을 더욱 강화하였다¹⁷⁾. 위숙왕후설은 고려 태조 왕건의 어머니인 위숙왕후를 천왕봉 성모신으로 신격화하여 산신으로 모신 것이다. 위숙왕후가 고려의 태조를 낳아 여산신으로 모셔진 것은 신라시대 선도산 성모의 개국신모적 산신신앙이 고려시대에도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나라의 시조를 탄생시킨 점은 같지만, 역사적 인물을 신격화한 위숙왕후설은 신라왕실의 실정에 맞게 변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라의 산신 신앙이 개국시조의 혈족인 어머니를 신격화 시켜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개국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다. 김종직은 신격화된 위숙왕후에 대해 고려의 왕계를 신성시 하려고 지어낸 것일 뿐, 이승휴의 기록도 신빙성이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개국모신의 산신신앙이 조선시대에서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숙왕후의 설과 함께 거론되는 마야부인설은 석가여래의 어머니를 성모로 신격화한 것인데, 이와 같이 성스러운 여성을 어떤 산의 신령으로 속하게 한 것은 원시형태의 여신사상이라기보다는 후세에 유행하기 시작한 위인승배사상과 결부된 것¹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마야부인설은 불교가 서역에서 수입되어 전국에 널리 전파된 시점에서 생겨나 유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마야부인설은 승려들이나 불교 신도에게서 전파되었을 것이다.

마야부인설이 위숙왕후설과 구분되는 점은 마야부인이 누구의 추대나 봉작을 받은 산신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지리산 산신이 되고 싶다하여 좌정한 산신이라는 점이다. 즉 도솔천에 있던 천신계의 마야부인이 직접 지리산을 선택한 것이다. 석가를 낳은 마야부인은 인간의 화복을

16) 허남춘(2014), 121~122면.

17) 허남춘(2014) 앞의 논문, 124면.

18) 孫晉泰(1934), 155면.

주관하다 궁극적으로는 미륵불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성인의 어머니-지리산 천왕신-미륵불 이라는 전세-현세-내세의 불교적 내세관에 잘 맞춰진 이 설화는 궁극적으로 지리산이 곧 미륵불이 도래할 성지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당시 불교가 산신신앙과 서로 상생지약(相生之約)을 맺은 것과 관련이 있으며, 본토 민간 신앙이었던 산신신앙에 불교가 적극 유입되면서 적극적인 종교 융화의 이념 내지 친불(親佛)적 이념이 생겨났을 것이다.¹⁹⁾

3) 개국영웅의 조력자 혹은 반역자가 되다.

<③-1 도선국사>

옛날에 개국(開國) 조사(祖師) 도선(道詵)이, 지리산 주인 성모천왕이 “만일 세 개의 암자를 창립하면 삼한(三韓)이 합하여 한 나라가 되고 전쟁이 저절로 종식될 것이다.” 한 비밀스러운 부탁으로 인하여 이에 세 개의 암자를 창건하였으니, 곧 지금의 선암사·운암사와 이 절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절이 국가에 대하여 큰 보탬이 되는 것은 고금 사람이 함께 아는 일이다. 그러나 창건한 연대가 멀어지고 또 주지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지붕이 허물어지고 상설(象設)이 퇴색되고 대장(大藏)이 썩고 무너져 장차 모두 없어지게 되었다.²⁰⁾

<③-2-1 이성계 조력자>

성모의 정수리에 흠집 난 자국이 있었는데, 우리 태조께서 인월에서 왜구를 물리친 해에 왜구가 분풀이를 하기 위해 칼로 내리쳤다고 들었다. 그리고 세조 때에는 내관을 보내 분향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모두 성모에게 기도를 올린다.²¹⁾

19) 姜英卿(2001), 199면.

20) 昔開國祖師道詵 因智異山 主聖母天王密囑曰 若創立三巖寺 則三韓合爲 一國 戰伐自然息矣 於是創三巖寺 卽今仙巖 雲巖與此寺是也 故此寺之於國家 爲大裨補 古今 人之所共知也 然以經始代遠 又住持者無恒 故 屋宇頽圯 像設剝落 大藏朽壞 皆將掃地矣 (朴全之, 『동문선』 제68권, 「靈鳳山龍岩寺重創記」)

21) 南周憲, 『宜齋集』卷11, 「智異山行記」. 頂有缺畫 聞我太祖捷引月之歲 爲倭寇所斫 世祖時 每遣中貴人 行香 凡上此山者 輒禱之.

<③-2-2 이성계 등극 반대>

옛날에 참말로, 그런 것도 있는등 몰래. 예, 저 등극(登極)을 하면은 제망을(제사를) 지내야 된다 카데.……그런데 그레가 인자 등극을 하는데, 어이 되노 그러면은. 각 참 산이 제망을 지내는데. 등극을 하듯이 지내는데 지리산이 뻑 돌아 앓드라나. 그래서 저 전라도 지리산이 어뵈노 그러던 나인데(내게) 응원을 안 하이, 귀향을 보내뿌렸어. 그레 전라도 지리산이라고. 그 참 우리 선조 등극하실 적에 귀양을 보내뵈는기라.²²⁾

고려 왕실이 지리산과 연결된 것은 “성모가 도선에게 명하여 송악을 가리켜 명당이라 말하고”에서 보듯이 ‘도선국사’ 때문이다. 도선국사는 송악에 도움을 정하여 창업하도록 도왔으며, 도선국사의 덕으로 태조가 태어나고 삼국이 통일되었다 여길 정도였으니, 고려왕실은 더욱이나 지리산 성모에 대한 숭배가 대단하였을 것이다.

고려에서 조선왕조로의 교체는 종교·사상·문화 등의 전면적 개편을 의미한다. 이성계와 관련된 지리산 성모는 조선 건국 전후로 이성계를 도와 준 조력자의 모습과 이성계의 등극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나누어진다. 조선 건국 전 고려 말, 이성계가 지리산에서 왜구를 물리칠 때 성모천왕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이성계를 도와 승리하게 한 이야기는 지리산의 산신인 성모가 친히 이성계를 도운 것으로 이성계에 대한 민중 지지층을 확보하는데 일조하였고, 조선 개국의 명분도 세울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조선건국 직전 혹은 조선건국 직후에 유행 했을 두 번째 이야기는 지리산 산신을 반역의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여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각 명산을 다니며 각 산신들의 동의를 구하였는데, 유독 지리산 산신만이 이를 반대하여 지리산을 귀양 보내버린다. 이성계를 도왔던 지리산 성모가 조선 건국을 앞둔

22) 『한국구비문학대계』1집 7책.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참조 <http://yoksa.aks.ac.kr>

그를 극구 반대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이성계를 이신벌군(以臣伐君)한 패륜적 인물로서 적대감을 표현하는 설화²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지리산 성모가 친히 나서 이성계를 도와 위기에 빠진 고려를 구했는데, 이성계가 그 은혜를 잊고 고려 왕조를 멸망시킨 것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성모천왕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민중에서 일어난 조선건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반영된 까닭이기도 하겠지만, 유교라는 새로운 질서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조선왕조의 전략적인 분리정책으로 시행된 것이기도 하다. 고려시대 산신이 대왕으로 봉작 되었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왕의 하위계층에 속하는 호국백에 봉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2. 한라산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은 선문대, 설명두, 세명뒤 할망, 선마고(洗麻姑), 사만두고(沙曼頭姑)라고도 하며 제주도의 한라산을 비롯한 오름, 섬, 기암 등을 창조한 천지 개벽신화의 거신(巨神)이었다.

1) 창조신의 면모를 지닌 할미신이다.

<①-1, 거구의 할미신>

옛날 제주도에 선문대할망이라는 노파가 살았다. 이 할망은 키가 얼마나 크던지 하늘에 치솟아서 아득히 머리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선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벼개삼아 베고 누으면 두발은 성산포 앞 바다까지 닿아서 발로 물장난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²⁴⁾

<①-2, 한라산>

어떻든 이처럼 거대한 여신이니 한라산쯤은 거뜰히 만들어 낼 수가 있

23) 지리산 성모가 지지한 우투리를 이성계가 찾아내 죽여 버린 우투리 설화가 대표적이다. 이성계와 지리산신과의 대결에 관해서는 崔來沃(1978), 74~90면을 참조할 만하다.

24) 임동권(1964), 118~119면.

다. 속옷은 없어도 치마는 있었던지 그녀는 치마폭에다 흙을 가득 담고 지금 한라산이 있는 자리에 운반해 가는데 험 치마폭의 터진 구멍으로 조금씩 흙이 새어 지금 도내의 많은 오름악이 되고, 날아간 흙은 부으니 한라산이 되었다. 간단히 해치운 창조였다.

치마폭의 흙을 부어 만든 산이니 둥글게 원추형으로 되어 있어 지금의 한라산의 모습과는 달랐을 게 분명하다. 꼭대기가 깨어져 백록담이 되고 기암절벽이 이루어져 기승을 이룬 것은 먼 훗날이 일이다.²⁵⁾

<①-3, 산방산>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소금강이라고 할 만큼 경치가 조은데, 395미터나 되는 이 산은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의 한쪽 뿌리를 뽑아 집어던진 것이라고 하며 산뿌리가 뽑혀 웅덩이진 곳이 바로 백록담이라 한다.²⁶⁾

위의 신화에서 설문대할망은 노파의 신분으로 거구의 몸을 하고 있다. 한라산을 베개나 의자 삼아 누워 있거나 앉아있다는 것은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에 제대로 좌정한 여산신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①-2와 ①-3에서 한라산과 산방산을 창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커다란 치마를 이용해 흙을 쌓아 산을 창조하기도 하며, 때로는 창조한 산을 훼손시켜 또 다른 산을 만들기도 하는데, 창조에 있어서 자유로웠던 창조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설문대할망의 창조에 대해 목적의식이 없음으로 신성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²⁷⁾ 하지만, ①-2와 ①-3을 두고 볼 때, 비록 명확한 목적의식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은 거뜰히 만들 수 있었다던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자의에 의해 한라산 한쪽을 뽑아 버렸다는 점은 그의 행동에 걸림이나 제어 받는 상황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2) 부부의 연을 맺다.

<설문대하루방과의 혼인>

옛날 지주에 설문대 하루방이라는 하루방이 잇었수다. 이 하루방 키는

25) 장주근(1962), 5면.

26) 임동권(1964) 앞의 책, 119면.

27) 이성준(1990) 59면.

한라산 높이와 같았다. 그리고 이하루방의 셋놈은 짙고 커서 할망을 구하지 못하여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바다에 나가 보니 키가 큰 할망이 해산물을 잡고 있어서 설문대하루방은 저 할망은 내 배필이 될 만하다고 보고 할망 곁에 가 “난 설문대하루방이요. 당신은 누구요? 우리 둘이 부부되어 함께 삽시다.” …… 설문대하루방과 설문대 할망은 부부가 되어 아들 오백 성지를 보고, 피기가 먹고 싶어서 하루방에게 바다에 내려가서 피기를 잡으러 가자 하였습니다. 28)

범상치 않은 설문대하루방의 짝으로 설문대할망이 선택된다. 이는 설문대할망 대신에 남신격인 설문대하루방이 부상하면서 설문대할망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개의 여산신은 남자신과의 혼인과 출산을 하면서 남자신의 부속신으로 강등되거나, 생계를 걱정하며 노동을 해야 하는 인간화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위의 신화에서 설문대할망의 성격 변화는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가 가미됨으로써 29) 원래의 신성성이 약화된 부분을 보여준다.

3) 죽음을 맞다.

<③-1, 5백 아들의 출산과 죽음>

아들 5백 형제를 낳고 그 많은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큰 술에 죽을 끓이다가 그만 잘못해서 빠져 죽었다. 자식들이 그것을 알고 같이 산중에서 죽어 버리니 그것이 현재 제주도 명승의 하나인 영실기암의 5백장군이다.

등산할 때에 이 5백 장군봉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 할망이 성을 내서 구름가 안개를 끼게 한다. 30)

<③-2, 익사하는 할망>

설문대 할망은 키가 큰 것이 자랑거리였다. 할머니는 제주도 안에 있는 깊은 물들이 자기의 키보다 깊은 것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려 하였다. 제주 시 용담동에 있는 용소가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고, 서귀읍 서흥리에 있는 홍리물이 깊다해서 들어서보니 무릎까지 닿았

28) 임석재(1993), 279~280면.

29) 허남춘(2013), 125면.

30) 장주근(1962) 앞의 책, 8~9면.

다. 이렇게 물마다 깊이를 시험해 돌아다녔는데 마지막에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다가, 그만 풍덩 빠져 죽어 버렸다는 것이다. 물장오리가 밀이 터져 한정 없이 깊은 물임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³¹⁾

설문대할망 신화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바로 창조여신을 계승한 한라산의 산신 설문대할망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곧 신이 사람이 죽듯이 죽어 버리는 것이다. ③-1에서 5백 아들을 낳은 설문대할망은 전혀 영험함이 없는 인간의 어머니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아이를 위해 죽을 끓이다가 빠져 죽고 마는, 자신의 아이를 해할 때 성을 내는 모성만이 강조될 뿐이다. ③-2에서 설문대할망은 어처구니없는 물놀이에 익사하는 모습으로 해학적이기까지 하다.

신성성이 완전히 거세된 설문대할망은 속인화 되었고, 제의대상에서도 제외 되었다. 설문대할망은 영조 47년(1771)까지만해도 제주도 민중들이 제(祭)나 그 밖의 비념으로 섬겼었다. 그러던 것이 1950년대에는 “산신굿”이란 특수하고 국부적인 제의에만 남았었다가 현재에는 그마저 없어졌다.³²⁾ 현재 제주도에 300개 가까운 당(堂)이 있지만, 설문대 할망당이나 설문대할망을 모시는 제의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설문대할망은 현재 신으로서의 자격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셈이다.

31) 현용준(1996), 23면.

32) 이성준(1990) 앞의 논문, 61~63면.

Ⅲ. 중국 신화속의 여산신 형상

1. 곤륜산 서왕모

중국 사람들에게 곤륜산은 신을 통하고 하늘과 통하는 길이었다. 곤륜산은 높고도 신성하며 신비롭고 미묘한 선경과 장생불사의 선약이 있는 곳으로, 곤륜산을 찾지만 하면 장생의 선약을 얻어, 질병과 죽음에서 해탈하고 만수 무병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대대로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황제들도 사신을 보내 곤륜산을 찾으려고 애썼다.³³⁾

중국 신화의 원천인 곤륜산은 동방의 올림푸스 산으로, 모든 신들의 낙원이며 수많은 신선들이 거처하는 신성한 곳이다. 이러한 신령 중에서도 후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서왕모, 곧 왕모낭낭(王母娘娘)이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서왕모에 관한 신기한 전설과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서왕모인 왕모낭낭은 옥황상제의 부인으로 영원히 30여 세의 모습으로 온화하고 기품이 있으며 수많은 선녀들의 시중을 받고, 선도와 옥주를 먹으며, 옥황상제를 도와 천상과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

하지만, 중국 고대신화집 『산해경』에 그려진 서왕모의 모습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아름다운, 혹은 온화한 여신의 모습이 아니다.

1) 흥신의 모습을 하다

서쪽에 왕모산·학산·해산이 있다. 옥국이 있는데 옥민이 옥야에 살며 봉새의 알을 먹고 단 이슬을 마신다. 그들이 원하는 바의 온갖 맛이 다 갖추어

33) 역사 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화 곤륜의 지리적 위치를 끊임없이 의문하여왔으며, 곤륜산에 대한 진실성과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 고대 학술계에서도 2천 여년 간 논쟁을 이어왔다. 청대에 곤륜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설이 이미 십여 종이 나 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에 대한 결론 또한 분분한데, 서방설·동방설·서남설·청해환호설(青海環湖說) 등이 있다.

저 있다. 여기에는 감화감사·흰버들·시육·삼추·선과·요벽·백목·낭간·백단·청단이 있고, 은과 철이 많이 난다. 난새가 절로 노래 부르고 봉새가 절로 춤추며 여기에 온갖 짐승이 서로 무리지어 사는데 이곳을 옥야라고 한다.³⁴⁾

서해의 남쪽, 유사(유사)의 언저리, 적수의 뒤편, 흑수의 앞쪽에 큰 산이 있는데 이름을 곤륜구라고 한다. 신—사람의 얼굴에 호랑이의 몸인데 꼬리에 무늬가 있으며 모두 희다—이 있어 여기에 산다. 산 아래에는 약수연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 바깥에는 염화산이 있어 물건을 던지면 곧 타버린다. 어떤 사람이 머리꾸미개를 꽃고 호랑이 이빨에 표범의 꼬리를 하고 동굴에 사는데 이름을 서왕모라고 한다. 이 산에는 온갖 것이 다 있다.³⁵⁾

여기에서 묘사된 서왕모의 처소 부근의 옥국은 도처에 모든 것이 풍성한 풍경이다. 이곳은 물산이 풍부하고, 새들이 춤추며 옥민들은 배고프면 새 알을 먹고 갈증나면 감로를 마시며, 온갖 짐승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세상에 다툼이 없는 극락세계이다.

이 같은 극락에 살고 있는 서왕모의 형상은 “사람 같으나 표범의 꼬리와 호랑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휘파람을 잘 불고, 더부룩한 머리에 머리 꾸미개를 꽃고 있다”. 산해경 속의 서왕모는 당시 산굴에 사는 반인 반수의 신으로 삼청조가 먹을 것을 가져다주며, 오형(五刑)을 관장하는 신이다.

서왕모의 “호랑이 이빨”은 크고 날카로운 이빨과 호랑이 얼굴로 곤륜산을 지키는 개명수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처럼 공포스러운 호랑이 머리 장식하고, 야수의 꼬리를 한 서왕모는 머리를 흘트리고 고성을 지르

34) 정재서 역(1985), 300면 참조. 王母之山 壑山 海山 有沃之國 沃民是處 沃之野 鳳鳥之卵是食 甘露是飲 凡其所欲 其味盡存 爰有甘華 甘柑 白柳 視肉 三騶 璇瑰 瑤碧 白木 琅玕 白丹 青丹 多銀鐵 鸞鳳自歌 鳳鳥自舞 爰有百獸 相羣是處 是爲沃之野.(『山海經·大荒西經』)

35) 정재서 역(1985) 앞의 책, 304면 참조. 西海之南 流沙之濱 赤水之後 黑水之前 有大山 名曰崑崙之丘 有神一人面虎身 有文有尾 皆白一處之 其下有弱水之淵環之 其外有炎火之山 投物輒然 有人 戴勝 虎齒 有豹尾 穴處 名曰西王母 此山萬物盡有.(『山海經·大荒西經』)

며 소란스럽게 어떤 의식을 행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흉신의 형상으로 그려진 서왕모는 고대 서부 원시 부락의 여 추장이나 무술사가 신성한 행위를 할 때의 분장한 모습인 듯하다.

그렇다면 선민들은 왜 이러한 기이한 모습의 신을 상상한 낸 것일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서왕모는 본래 하늘의 재해와 오형참살을 제어하는 흉신이었기 때문이다.

원시사회에서 인류의 생산 능력은 극히 저하되었고, 대자연의 다양한 재해에 대해 항거할만한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식도 없었다. 단지 이러한 재해는 인류가 이길 수 없는 흉신이 조종하는 것이며, 인류 스스로의 부당한 언행이 신령을 노하게 하여 벌을 내린 것이라고 여겼다. 자연 재해 외에도 인류에게 내려진 역병이나 죽음과 같은 고통은 매우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서왕모가 대자연의 재해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형벌을 주관하고 있다고 여겼다.

『산해경』에서의 서왕모는 울부짖기만 할뿐 말은 못하는 흉신으로 역병과 재해의 신이며, 형벌을 내리고 주살하는 사망의 신이다. 죽음과 생명이 서로 양면으로 공존하며 서왕모는 인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며, 또한 인류를 죽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서왕모는 생명의 신이자, 생식의 신으로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었다.

2) 장생불사의 선약을 소유하다.

『목천자전(穆天子傳)』에서 목왕이 서왕모의 나라에 와서 서왕모를 회견할 때 손님의 예를 갖추 백색의 옥과 흑색의 옥, 화려한 비단을 올렸는데 서왕모는 이 선물을 공경히 받았다. 목왕은 또한 요지에서 연회를 열어 서왕모를 환대하였는데, 그 분위가 우호적이며 화목하였다. 이때의 서왕모는 이전의 흉폭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며, 문학적 재능을 펼치며 시 한수를 지어 올리기도 한다.

연회가 끝난 후 목왕은 암자산(巖岵山) 정상에 올라 비석을 세우고 “서왕모의 산”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고, 비석 주위에 직접 한 그루의 회화나무를 심어 서왕모와 회견한 것을 기념하였다.

『목천자전』을 계기로 서왕모는 고귀한 신의 위치에서 내려와 인간에게 보다 친숙한 신선이 되었다. 한 대(漢代)에 와서 서왕모는 민간의 열렬한 숭배자들을 확보하게 된다. 당시의 다양한 신화 기록과 문헌 자료들은 서왕모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깊은 신앙을 보여준다.

특히 서한에서 동한으로의 교체기라는 불안한 사회 현실에서 사람들은 서왕모의 부적을 지니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노래하고 춤추며 서왕모에게 제사를 올렸다. 서왕모가 불사약을 지닌 선인이자 인간의 장생불사를 주관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서한 말에는 서왕모에 대한 신앙이 광적인 민간 종교 운동으로 발전³⁶⁾하게 되었다.

3) 남자신과 사랑을 하다.

한위진 시기이후 서왕모의 형상은 또 한번 바뀌게 되는데, 아름다운 여신선의 영수가 되어 중원 왕조의 최고 통치자인 한 무제와 회견한다. 그 이후 서왕모는 도교 신계에서 최고 여자 신선이 되었고, 민간에서는 왕모낭낭으로 변화였다.

『신이경(神異經)』에서 “서왕모와 동왕공이 매년 큰 새의 날개에 올라 타 새의 등에서 만나는데, 그때 새를 밟고 만나기 때문에 새의 털이 다 빠진다.”라고 하였다. 서왕모와 동왕공, 즉 여자신과 남자신이 이렇게 서로 만난다는 것은 실제로는 음양이 회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한대(漢代)의 음양학설에서 발생한 것이며, 고대에는 없었던 서왕모의 인격화를 나타낸 것이다.

서왕모의 형상은 최초의 곤륜신화에서 변화하기 시작하여 종교화, 민간화, 세속화 되었다. 흉신 형상의 서왕모 신화는 곤륜신화가 동쪽으

36) 송정화(2007), 260~261면.

로 전과되면서 증원문화와 충돌하며 도교 사상이 유입된 신선의 형상으로 변모하였다. 서한시기 신선설의 성행으로 상층의 제왕 귀족은 권력과 부귀를 보호하기 위해 장생불사를 기원하였고, 방사(方士)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서왕모 조상(彫像)을 장생불사의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도교의 발전으로 서왕모의 지위는 끊임없이 상승하였고, 여신선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여산신은 더욱 인격화 되었고, 인간의 제왕은 신격화 되었다. 인격화된 신과 신격화된 인간은 서로를 흠모하는 대상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는데, 한 대 동중서의 음양설이 신학 체계에 영향을 주면서 서왕모는 태평성세의 상징이 되었고, 통치자들의 교화 도구로 이용되었다.

2. 태산 벽하원군

태산 벽하원군은 중국의 민간 신앙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여산신이다. 명·청시기 이후 민간에서는 벽하원군을 태산의 주신(主神)인 동악대제(東嶽大帝)와 동등한 지위, 혹은 그를 능가하는 태산의 공동 주신으로 높이 숭배하였다.

벽하원군이란 칭호는 송진종 때 정식으로 하사 받은 봉호이다. 그 이전부터 민간에서는 태산녀(혹은 태산옥녀)신앙이 널리 성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민속학계에서는 이를 벽하원군의 전신으로 본다.³⁷⁾

태산옥녀를 대표로 하는 태산 여산신은 송진종 때에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는데, 송진종이 칙서를 내려 태산 꼭대기 옥녀지 옆에 부식되고 조각난 옥녀 석상을 옥으로 다시 만들게 하고, 땃돌로 단(龕)을 만들어 원래 있던 곳에 봉치하고³⁸⁾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37) 태산옥녀와 벽하원군의 칭호에 내재된 연관성과 전승 관계에 대해 석경교(石經校) 교수는 태산 벽하원군의 전신이 여와(女媧)나 서왕모, 현녀(玄女) 등의 신녀가 아님을 밝히면서, 송대 이전 문헌 속에는 태산 벽하원군이라는 명칭이 전혀 등장하지는 않지만, 태산정(泰山頂)에는 이미 옥녀지(玉女池)와 옥녀석상이 있었다는 자료를 근거로 벽하원군의 전신이 태산옥녀임을 주장하였다. 石經校(1997), 53~54면.

송진종과 그의 추종자들이 태산에서 천서(天書)를 조작하여 봉선의식을 행하면서도 곧이 옥녀상을 발견한 이야기를 만들고 새 조각상을 세워 '천선신녀벽하원군'이라는 봉호를 내린 것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치적 설정이었다. 태산옥녀의 출현이 가지는 의미는 곧 황제의 적통으로서 중화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태산옥녀가 벽하원군의 봉호를 받으면서, 민간에서의 잡다한 설과 문인들의 시작품에 등장하던 태산옥녀는 점차 궁사(宮祠)의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다.³⁹⁾

송대 원우원년(元祐元年) 태산에 옥녀사가 있는 이후로 원대(중통中統, 1264)에 이르기까지 옥녀사는 소진(昭眞祠)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⁴⁰⁾ 명대 성화 19년(1483)에 소진사 증수를 마치고 “벽하영응궁(碧霞靈應宮)”이라는 편액을 받았다.⁴¹⁾ 이후 벽하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명 헌종이 특별히 벽하보광(碧霞寶光)의 운무에 뒤싸인 기이한 경치와 옥녀신전이 마치 선경을 이룬 듯한 기묘한 감정을 일어나게 함으로 편액을 내린 것이다.⁴²⁾

명 헌종의 사액(賜額)은 벽하원군 신앙의 전파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때부터 북경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크고 작은 벽하원군 사당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제사의 규모도 이전보다 훨씬 성대해졌다.

1) 통일대업의 조력자

명대(明代) 왕지강(王之綱)이 편찬한 『옥녀전(玉女傳)』에는 “태산 옥녀는 천선신(태산신)의 딸인데, 황제(黃帝) 시대에 처음 출현하였고, 한나라 명제(明帝) 때 다시 출현하였다.”⁴³⁾라고 기록되어 있다.

38) 周郢(2005), 72면.

39) 김지영(2010), 309면.

40) 山東省地方史志編纂委員會(1993), 328면.

41) 周郢(2005) 앞의 책, 30면.

42) 鄧東(2006), 9면.

여기에서 황제 시대에 출현한 태산옥녀는 황제가 염제와 9번을 싸우다 전패하여 태산으로 돌아와 삼일 밤낮을 잠을 설치며 승리할 법을 궁리하던 때에 사람의 머리에 새의 형상을 한 여인이 나타나 황제에게 재배하며 백전백승의 방법을 전수해준 이야기에 등장하는 현녀(玄女)를 가리킨다. 이때 태산옥녀는 범상치 않는 외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산해경에서 묘사된 서왕모의 형상과 비슷하며 인격화 되지 않은 태산 여산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황제를 도운 태산옥녀의 재출현은 통치자, 특히 통일대업을 이룬 황제들에게는 곧 화하민족으로서의 적 통성을 인정받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2) 딸과 아내로서의 여신이다.

장화(張華)의 『박물지(博物志)』에는 “태공망(太公望)을 관단령(灌壇令)으로 삼았는데, 1년이 지난 뒤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주문왕(周文王)이 꿈에서 한 아낙을 만났는데, 길을 막고 울며 말하기를 ‘저는 동악 태산신의 딸인데, 시집가서 서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동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관단령이 나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는 덕망이 높아 내가 감히 그 곳을 지나며 폭풍우를 칠 수는 없습니다.’”⁴⁴⁾라고 하였다.

위에서 보이는 태산녀는 신의 원초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이미 인격화되어, 인간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아낙네의 모습을 하고 있다. 태산신의 딸로서 산신계이면서 서해에게 시집 가 해양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관장하며 폭풍우 및 수재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43) 泰山玉女者 天仙神女也 黃帝時始見 漢明帝時再見焉. 김지영(2010), 307면 인용문 재인용.

44) 太公望爲灌壇令 期年風不鳴條 文王夢見一婦人當道而哭 問其故 曰 我東岳泰山女 嫁爲西海婦 欲東歸 灌壇令當吾道 令有德 吾不敢以暴風過也. 김지영(2010), 306면 인용문 재인용.

있다. 폭풍우를 일으키는 태산녀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재난을 내리는 신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진 사람, 특히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관리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는 선한 성품을 가진 인자함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3) 수도하여 득도하다

<③-1 선녀가 득도하다>

황제가 대악관(岱岳觀)을 지을 때, 일곱 선녀를 미리 세상에 내려 보냈는데, 구름 관을 쓰고 날개옷을 입고 태산에 내려오니 서곤진인(西昆眞人)이 그들을 맞이하였다. 옥녀는 일곱 선녀 중 수도하여 득도한 신선이다.⁴⁵⁾

<③-2 인간이 득도하여 신이 되다>

한명제 때, 서우국 손녕부 봉부현에 거주하는 선비 석수도의 아내 김씨가 증원7년 갑자 4월 18일 여자 아이를 낳았는데, 옥엽이라 이름 하였다. 생김새가 단정하고 총명하며 영민하여 3살 때 인륜을 이해하고, 7살 때 법을 알아들었으며, 일찍이 서왕모에게 예를 올렸다. 14세 되던 해, 홀연히 서왕모의 교시를 받아 입산하여 조선장(曹仙長)의 지도를 받아 천공산(태산) 황화동에 들어가 수련하였다. …… 3년을 단련하자 원기가 발하며 빛이 선명하니, 드디어 태산에 의탁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태산에 옥녀신이 있게 되었다.⁴⁶⁾

③-1의 신화에서 황제는 곧 중화민족의 시조이며, 이런 황제가 파견한 옥녀는 황제의 대리신으로 오악의 으뜸인 태산에 기거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을 가진다. 날개옷을 입고 내려온 태산옥녀는 지신(地神)이 아닌 천선(天仙)계이지만, 황제의 명으로 태산에 내려와 수도를 통해 태산의 신선이 되어 하늘이 아닌 지신으로 정착하게 된다.

45) 黃帝建岱岳觀時 曾經預先派遣七位女子 云冠羽衣 前往泰山以迎西昆真人 玉女乃一七女中的修道得仙者 (李諤, 『瑤池記』) 김지영(2010), 307면 인용문 재인용.

46) 漢明帝時 西牛國孫寧府奉符縣善士石首道妻金氏 中元七年甲子四月十八日子時生女 名玉葉 貌端而生性聰穎 三歲解人倫 七歲輒聞法 嘗禮西王母 十四歲忽感母教 欲入山 得曹仙長指 入天空山黃花洞修焉……三年丹就 元精發而光顯 遂依于泰山焉 泰山以此有玉女神(『玉女卷』), 김지영(2010), 307~308면 인용문 재인용.

③-2의 신화는 인간이 신이 된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옥엽은 신령한 선조나 역사적 영웅이 아닌 일반 평민계층에서 태어나 신선으로 승격되었는데, 남성신관을 추존하는 정부 관료 체제에서 벗어난 인물이다.⁴⁷⁾ 옥엽은 부유한 귀족이나 왕족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도교적 수행을 통해 신선이 되는 과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서왕모를 모셨다거나 수련을 하여 빛을 받았다거나 하는 행위들은 도교적 수행법을 통해 신선이 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도교에서는 민간인인 옥엽이 도교적 수도를 통해 신선의 반열에 올랐으므로, 훗날 자신들의 신보(神譜)에 모신 벽하원군의 전신으로 여기고 있으며, 벽하원군을 기념하는 행사인 묘회(廟會) 또한 옥엽의 탄생일인 4월 18일에 맞추어서 열리고 있다.

IV. 한중 신화 속 여산신 형상의 변이 과정과 그 의미

한중 신화 속의 여산신은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대이든 간에 국가 권력층과 일반 민중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존송되어져왔다.

상고시대 인류에게 산은 우뚝하고 거대한 형체로 사람을 압도하며 순식간에 변화하는 기후현상으로 두려움과 공포의 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여산신 또한 인자하거나 아름다운 모습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산해경』에서의 서왕모는 울부짖기만 할뿐 말을 못하는 흉신으로 역병과 재해의 신이며, 형벌을 내리고 주살하는 사망의 신이다. 죽음과 생명이 서로 양면으로 공존하며 서왕모는 인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며, 또한 인류를 죽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서왕모는 생명의 신이자, 생식의 신으로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었다.

47) 劉曉(2008), 39~40면.

인류가 상상해낸 산이 아닌, 자신의 생활 주거지와 근접해 있던 산에 대한 인식은 생활과 생명을 유지할 생산물을 제공해주고, 때로는 자연 재난과 전쟁 등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산이라는 공간적 인식이 변하면서 그에 대한 여산신의 모습도 변화하게 되었다. 먼저 외형적으로 홍신의 모습에서 인자한 어머니 혹은 할머니, 심지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대중과의 친근감과 여성적 포용력으로 여산신에 대한 신앙도 급격히 발전하게 되면서 신도들이 발휘하게 되는 응집력도 더욱 커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지배층의 관심 또한 커지게 되었다.

서왕모의 형상은 최초의 곤륜신화에서 변화하기 시작하여 종교화·민간화·세속화 되었다. 홍신 형상의 서왕모 신화는 곤륜신화가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중원문화와 충돌하며 도교 사상이 유입된 신선의 형상으로 변모하였다. 서한시기 신선설의 성행으로 상층의 제왕 귀족은 권력과 부귀를 보호하기 위해 장생불사를 기원하였고, 방사(方士)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서왕모 조상(彫像)을 장생불사의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도교의 발전으로 서왕모의 지위는 끊임없이 상승하였고, 여신 선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여산신은 더욱 인격화 되었고, 인간의 제왕은 신격화 되었다. 인격화된 신과 신격화된 인간은 서로를 흠모하는 대상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는데, 한 대 동중서의 음양설이 신학 체계에 영향을 주면서 서왕모는 태평성세의 상징이 되었고, 통치자들의 교화 도구로 이용되었다.

지리산 성모나 설문대할망은 돌과 바위를 이용하여 지형을 만들거나 변형하기도 하였는데, 비록 세계를 빚는 거대한 창세는 아니더라도 그 일면에 창조여신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토를 만들고 지형을 바꿀 수 있던 능력을 가진 여산신은 특히 왕조와 이념 교체기에 조심스럽게 지배 군주의 정통성을 인정하거나 찬동하는 이야기들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지리산 성모는 위숙왕후나 마야부인으로 분하여 시조모의 형태로서

왕권이나 시조 탄생의 경건함과 왕국의 개국에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송진중 역시 태산옥녀가 현신한 이야기를 내세워 천서를 위조하여 지켜낸 왕좌를 수호하려 하였다.

이들 정치권력은 자신의 적통성 혹은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왜 여산신을 끌어들이어야만 했던 것일까? 이는 여산신에 대한 신앙 혹은 신념이 대중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화의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신념을 행위로 실천한다는 것이다. 어느 특정신에 대한 신앙은, 수많은 대중의 힘이 동일한 신념 아래에 집결되어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왕조가 건설되고 새로운 종교나 사상이 전파 될 때에 대중들에게 이미 토착화되어 있는 신념을 서로 수용하거나 융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산신이 살고 있는 산 자체가 지역적, 지형적으로 중요한 요지에 있고, 여산신 신앙이 흥성하면서 지배층에서는 산에 대한 제사, 산신에 대한 제사를 국가 제도권 안으로 영입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이념이 정착되고, 그 이념이 기득권의 중심 사상이 되어 하위 계층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전의 신념은 더 이상 재고할 대상이 아니었다. 이성계와 지리산 산신과의 두 가지 신화가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 왜구에 맞서 싸우는 이성계를 돕다가 정수리에 칼을 맞는 지리산 성모는 태조를 보필해 나라를 구한 수호신으로 숭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 개국을 앞두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동의를 구하던 이성계에게 등을 보이고 만 지리산 산신은 왕권에 도전한 반역의 신으로 귀양보내진다. 이처럼 지리산을 과감히 귀양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또 다른, 새로운 이념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유교적 관념이 사회를 지배하던 상황에서 ‘여신’이란 존재는 당시 지배 계급에게 혁파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 자연을 창조하고 신앙적 존재였던 여산신은 평범한 인간 여성의 의미지로 부각되었

는데, 이는 여산신이 가졌던 신앙적 의미를 강등시키고자 했던 사회구성원⁴⁸⁾, 혹은 정치적 힘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여산신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거나 남자신 혹은 인간과 연애를 하거나 출산을 하는 등 인간화되면서, 점차 남자신의 부속신으로 강등되거나 그 신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런 여산신의 쇠퇴는 중국 창세 여신신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여와는 천지와 인류 창조의 여신인데, 그 강하고 두렵고 무서운 힘이 해체되고 남신 복희의 아내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역할로 변모하며⁴⁹⁾ 부속적·종속적 존재가 되었다.

설문대하르방과의 혼인으로 인간화된 설문대할망의 최후는 신이라기엔 너무나도 비참하다. 산을 만들고 지형을 만들던 창조의 신이었던 설문대할망의 신통력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지 오백 아들의 먹을거리를 걱정하며 죽을 끓이다 빠져 죽는 어미로서 최후의 운명을 맞이한다. 물장오리의 깊이를 몰라 익사해버리는 이야기는 더욱 황당하게 느껴진다. 설문대할망의 죽음을 이야기했던 이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일까? 어미로서의 숭고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지, 잘난체하다 빠져 죽는 여자의 어리석음을 희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설문대할망은 여산신으로서의 품격과 위엄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여산신 신화에 비해 중국의 여산신 신화는 원시시대의 서왕모 형상 외에, 대부분 도교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불사약을 가지고 있거나 신선이 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여신이나 인자한 부인의 모습으로 형상화 되었다. 중국의 여산신은 인격화되면서 그 신격이 강등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불상사는 겪지 않았다. 비록 남자신의 부속신이 되더라도 신통력을 부려 통일대업을 이루게 도와주기도 하고, 신격화된 황제와 사랑을 나누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여산신이 민간의 한 소녀로 인간화 되었을 때에도, 혼인과 출생의 길이 아닌 수도와 수련을 통해

48) 김경호·최병길·이성은(2004), 335~336면.

49) 차옥승 외 (2010), 161~162면.

신선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신화는 설문대할망의 최후와 크게 비교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는 태산옥녀 및 기타 여산신이 이미 도교 신보에 모셔져 공식적 숭배 대상으로서 자리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위나 입지가 이전에 비해 크게 손상되는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V. 맺음말

한국 지리산의 성모천왕과 한라산의 설문대 할망, 중국의 곤륜산 서왕모와 태산의 벽하원군은 각국을 대표하는 여산신으로 역사대대로 숭배 되었다. 지리산, 한라산, 태산은 국가 제사로 편성되어 중앙 정부에서 관리되었을 때에도 무당이나 승려를 비롯한 수많은 민중들이 언제든 찾아 갈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국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을 찾아 지리산 성모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리산 유람을 하며 지리산 성모에게 일기가 맑아져 지리산 유람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빌었던 사대부도 있었고, 여전히 후사를 받고 질병의 쾌유를 빌기 위해 찾아왔던 수많은 평민들도 있었다. 지리산 성모는 신분과 계급을 따지지 않고 들어 주는 만인의 산신이었다. 이러한 여산신에 대한 숭배는 물질적 형상의 신통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이라는 자연과 사람간의 교감 속에서 생성된 정신적 지향점이다.

임진왜란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리산 성모 신앙과 명·청시기 동약대체를 능가할 정도로 발전하는 벽하원군 신앙에서도 여산신의 포용과 관용을 볼 수 있다. 국란과 왕조의 교체기로 수많은 희생과 상실을 맛보았을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는 여산신이 좌정해 있는 곳이었으며, 최후의 유토피아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벽하원군 사당이 생기면서 신도들이 천리를 멀다 않고 벽하원군을

찾아 태산으로 몰려들었던 이유는 황제와 귀족이 숭상하는 동악대제보다 민중들이 더욱 쉽게 다가가고 자신들의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벽하원군 사당은 대중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정신적 집결지가 된 것이다.

새로운 왕조 건국이나 천손 강림에 있어서 여산신은 시조모의 역할을 담당하여 새로운 왕조 건립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여산신 신앙이 가지고 있는 대중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건국에 앞서 이성계가 국내 명산의 산신을 찾아다니며 각 산신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다는 이야기는 한 나라의 건국에 있어서 산신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며, 또한 대중들에게 있어 산신이 가지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에서 보다시피, 한국과 중국의 여산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여 왔고, 그에 대한 인식도 변화였다.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인식의 차이로 현재 한국과 중국의 여산신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한국의 지리산 성모는 여전히 원래의 자리인 천왕봉에 좌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리산 천왕봉을 찾는 수 십 만 명의 방문자 중에서 지리산 성모상이 천왕봉에 있었던 사실을 아는 이도 많지 않다. 설문대할망은 괴상한 할멈, 마귀할멈 등 해학적인 모습으로 간혹 동화나 극작품에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서왕모와 벽하원군은 도교의 신보에 편입되었지만, 대중적 친화력을 바탕으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대단하다. 곤륜산은 여전히 중국인들의 정신적 유토피아로, 신화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실속의 곤륜산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직도 많으며, 서왕모 역시 여전히 수많은 작가들의 예술창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벽하원군은 민중의 축제격인 “묘회”의 형식으로 사람들 간의 화합과 상생의 장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자리하고 있다.

미신이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잊혀져 버린 한국의 여산신, 여산신을 대하던 자연 존중과 상생의 마음을 되찾는다면, 현재 직면해 있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투 고 일 : 2015년 08월 10일

심사기일 : 2015년 08월 26일~09월 08일

게재확정 : 2015년 09월 09일

K C I

〈 參 考 文 獻 〉

『高麗史』

金宗直, 『佔畢齋集』卷2, 「遊頭流錄」

南孝溫, 『秋江集』6卷, 「智異山日課」

南周憲, 『宜齋集』卷11, 「智異山行記」

朴全之, 『東문선』 제68권. 「靈鳳山龍岩寺重創記」

張華, 『博物志』

王之綱, 『玉女傳』

李諤, 『瑤池記』

장주근(1962), 『한국의 신화』, 성문각.

임동권(1964), 「선문대 할망 설화고」, 『제주도』17, 제주시.

정재서 역(1985), 『산해경』, 민음사.

임석재(1993), 『한국구전설화』9, 평민사.

현용준(1996), 『제주도 전설』, 서문당.

조희웅 외(2003), 『영남구전자료집』4, 박이정.

위안커, 김선자 외 옮김(2007), 『중국신화사』상, 응진 지식하우스.

송정화(2007), 『중국 여신 연구』, 민음사.

차옥승 외(2010), 『동아시아 여성신화와 여성 정체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송효섭(2012), 『신화의 질서, 도상기호학적 탐구』, 문학과지성사.

김기주 외(2013), 『지리산의 종교와 문화』,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추창훈(2000), 「山神설화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철(2000), 「山神說話研究」,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의영(2003), 「한국설화에 나타난 山神의 성격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孫 眞(2008), 「韓國佛敎의 山神信仰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서연(2011), 「韓國古代 山神信仰의 性格」,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孫晉泰(1934), 「朝鮮 古代 山神의 性에 攄하야」, 『진단학보』 1권, 진단학회,
145~155면.

- 崔來沃(1978), 「韓國山神의 性格變化-智異山山神과 李成桂 說話를 中心으로」, 『향토문화연구』제1집, 69~92면
- 이성준(1990), 「설문대할망 說話研究-特徵과 變異過程을 中心으로」, 『국문학보』10집,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54~80면.
- 김영진(1991), 「韓國山神의 歷史的 考察: 神格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연구』제14집, 599~624면.
- 이은철(1999), 「산신설화에 나타난 山神助佑의 의미연구」, 『한어문교육』제7집, 175~209면.
- 손정희(2000), 「山神信仰研究: 文獻說話를 中心으로」, 『한국민족문화』제16집, 1~34면.
- 金榮洙(2001), 「三山五嶽과 名山大川 崇拜의 淵源 研究」, 『人文科學』제31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373~440면.
- 姜英卿(2001), 「韓國 古代 山神信仰에 나타난 理想人間型」, 『종교와문화』,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55~214면.
- 송정화(2003), 「韓·中 神話에 나타난 女神비교: 여신의 形象에 주목하여」, 『道敎文化研究』제19집, 285~318면
- 김경호·최병길·이성은(2004), 「설문대 신화의 의미분석과 수용자의 시각적 인식분석-기호학적 해석과 시각적 연구방법의 적용」, 『제주도연구』25집, 제주학회, 323~353면.
- 임재해(2005), 「산신설화의 전승양상과 산신승배의 문화」, 『비교민속학』제29집, 379~423면.
- 김아네스(2009), 「고려시대 산신승배와 지리산」, 『역사학연구』제33집, 23~56면.
- 김지영(2010), 「중국의 여산신 신앙 연구- 태산 벽하원군 신앙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19집, 303~319면.
- 허남춘(2013),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일본·중국 거인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탐라문화』42호, 54~80면.
- 허남춘(2014), 「성모·노고·할미란 명칭과 위상의 변화-지리산과 한라산의 여성신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9집』, 115~142면.
- 山東省地方史志編纂委員會(1993), 『山東省志·泰山志』, 中華書局.

中國民俗學會編(2002), 『中國民俗學年刊(2000~2001年合刊)』, 學苑出版社.

周郢(2005), 『泰山通鑿』, 齊魯書社.

石經校(1997), 「泰山女神崇拜之沿革」, 『岱宗學刊』第1號, 53~54면.

車錫倫(2001), 「泰山女神的神話, 信仰與宗教」, 『岱宗學刊』第1期, 3~6면.

鄧 東(2006), 「論述泰山碧霞元君演進的三個階段」, 『泰山學院學報』第28卷第2期, 6~11면.

劉 曉(2008), 「海外漢學家碧霞元君信仰研究——以英語文獻爲中心」, 『河南教育學院學報』第27卷, 38~42면.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Abstract>

Female Mountain Gods in Korean and Chinese Myths

Kim Ji-yung

<HK Research Professor, Gyeongnam Culture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ountain in Korea and China is more than just a natural object. The appearance of mountain that rises high from a flat plain excited the imagination of the ancient who imagined that there were something mysterious happening up in the mountains and in the mountains lived mysterious beings who held keys to secrets of human life.

The worship of the mountains and human imagination created sanshin (mountain gods) who communicated with heaven and ruled the affairs of men.

In the traditional religions of China and Korea, sanshin was placed in the highest place above all gods on earth and in the nature. It was a being that was worshipped first in all rituals.

What is unique about the religion of sanshin in China and Korea is that it had female mountains gods who lived in a mountain and exerted influence throughout history.

These female mountains gods were worshipped by common people and held powerful influence on them. They were beings that

new regions could not ignore or exclude and therefore had to be integrated or embraced.

Seongmo in Jiri-san mountain and Seolmundaehalmang in Hallah-san mountain in Korea; Seowangmo in the imaginary Konryun-san mountain in China and Byeokhawongun in Tae-san mountain in China are all female mountains that are characteristically found in Korea and China. Their influence can still be found intact today.

This paper focused on the materials related to Jiri-san Seongmo, Hallah-san Seomundaehalmang, Konryun-san Seowangmo and Tae-san Byeonwhawongun and investigated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female mountains gods in them and explored the meaning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the religions of female mountain gods

Key words: female mountains gods, Myths, Jiri-san Seongmo, Seomundaehalmang, Seowangmo, Byeonwhawongun.